

# 치커리 5월 상순이 파종 적기

## 1. 재배환경

치커리는 상추처럼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며 산간고랭지인 해발 400~600m 이상되는 곳이 비교적 재배가 용이하다.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석회질 토양으로서 부식질이 많고 토심이 깊은 석회질 토양을 좋아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토질은 가리지 않으며 진흙땅의 경우 가는 뿌리 발생이 심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2. 품종

치커리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크게 두가지의 변종이 알려져 있다. 그 중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학명으로 *Chicorium Intybus L. var. sativus*에 속하는 변종이며 뿌리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품종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은 없다. 다른 한가지는 주로 잎을 샐러드 형태의 채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식물분류학상의 학명이 *Chicorium intybus L. var. foliosum*로서 슈기·로프치커리, 주커후트, 로쏘



디 베로나, 팔라로사, 위틀로프 등 많은 품종이 육성되어 있다.

## 3. 재배 방법

### ① 종자 준비

치커리 종자는 2년생 이상된 포기에서 채종된 종자를 준비해야 하며 종자의 발아능력은 4~5년간 가지고 있다.

본밭 10a에 소요되는 종자는

210kg/10a으로 가장 높았다.

### ③ 파종 전 준비

<본밭 만들기>

4월 중하순에 본밭을 경운하여 퇴비와 복합비료, 토양살충제를 전면으로 고르게 살포하고 로타리작업을 하여 정지작업을 해준다.

<시비 방법>

밀거름으로는 [표2]와 같은 양으로 경운 즉시 전면 살포토록

[표1] 시비 기준량

구분	밀거름	웃거름	
		1차	2차
퇴비	1,500	-	-
18-18-18	115	-	-
요소	-	20	20

0.5~0.7l 정도이며, 종자의 발아특성은 광조건에 관계없이 10~30°C에서 2~3일에 70% 이상 발아하는 것이 좋다.

### ② 파종 시기

치커리의 파종시기는 대단히 중요한데 5월 상순이 가장 적합하며 파종기에 따른 엽장(葉長), 엽수(葉數), 엽중(葉重) 등의 지상부 생육량과 근장(根長), 근경(根徑), 근지수(根枝數), 근중(根重) 등의 뿌리발육량은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생근 수량은 입모음이 높았던 5월 5일 파종구에서 3,

하고 추비는 6월말과 7월말 2회에 걸쳐 요소비료를 전면으로 뿌려준다.

### ④ 파종 방법

<넓은두둑 파종>

재배여건에 따라 넓은두둑과 좁은두둑으로 할 수 있으며 두둑을 너비 120cm, 두둑사이 30cm로 하여 두둑을 만들고 이랑폭 30cm, 포기사이 15~20cm로 파종하여 1포기에 3~4알씩 점뿌림으로 파종하고 1~2mm 정도로 얇게 복토한다.

비닐피복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두둑을 만든 뒤 흑색비닐을

**문** 경북에서 작약을 재배한 농민입니다. 금년 8월경 지상부 전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한 결과 연작재배로 인한 피해라고 합니다. 작약 재배시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작약은 경북·전남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면 연작시 피해가 상당히 큰 작물입니다. 연작시 나타나는 주 피해는 뿌리혹선충에 의한 것이며 6월경 지하부가 고사하며 이후 7~8월경 지상부 전체가 고사합니다. 연작으로

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떤 작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확후 판로가 비교적 쉬운 작물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 식량작물과는 달리 약초류는 재배기간이 1년인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2~3년 정도 재배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성 작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비교적 300평 기준에서 수익성이 100만원 이상인 작물은 맥문동, 작약, 산수유, 오미자, 일천궁등이며 50~100만원인 작물은 산약, 토당귀, 만삼, 목단, 울무, 구기자 등이 있습니다.

## 작약 연작피해 줄일 방법은?

인한 선충의 피해는 수확량이 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작지의 뿌리혹선충, 뿌리썩이선충은 작약 뿌리속에 혹은 만들어 양분과 수분 흡수를 방해하여 작물이 시들거나 일찍 고사합니다.

따라서 방제방법은 가급적 연작을 피하고 심한 포장은 벼 등을 재배하여 재배포장에 물을 넣어 선충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돌려짓기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 새로운 소득작물인 약용작물 재배에 관심있는 농민입니다. 97년도에 약초 재배

수요량과 국내 재배면적이 많고 판매도 비교적 용이한 작목은 구기자, 당귀, 울무, 작약, 황기입니다. 소득성이 높고 재배면적이 많은 작목이 비교적 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있고 수확후 판매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위의 점을 참고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재배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작목선정시 인근 농촌진흥원이나 시·군 지도소 담당자 또는 재배경험이 많은 농가와 문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약용작물개발 연구실>

덮고 두둑 가장자리를 흙으로 묻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한 뒤 재식거리에 맞도록 파종구를 뚫고 파종한다.

비닐 피복이 안된 포장에서는 파종 직후에 벧짚이나 차광망을 이용해 덮어 주어 발아가 잘 되

도록 해준다.

<좁은두둑 파종>

두둑의 너비를 60cm, 두둑사이 30cm로 하여 두둑을 만들고 넓은두둑 파종과 같은 방법으로 파종한다.

잇꽃 피복재배 10a당 질소 15kg 최적

잇꽃(홍화)은 필름으로 피복재배할 경우 10a(3백평)에 질소를 15kg, 피복하지 않고 재배할 때는 10kg을 뿌리는 것이 생육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농촌진흥원은 잇꽃을 필름으로 피복재배할 경우 10a에 질소를 5~20kg까지 5kg단위로 시비량을 높였을 때 수확량을 15kg에서 1백96kg으로 관행 5kg시비의 1백82kg보다 8% 늘어난다고 밝혔다.

반면 무피복재배할 때는 10kg만 뿌리는 것이 수량이 1백19kg으로 5kg과 15kg보다 2~5% 증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참당귀 적정 채종시기 규명

### 2~3년생에서 채종...추대울 낮추고 증수

꽃대가 올라와 수량과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참당귀의 추대현상을 줄일 수 있는 적정 채종시기가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은 노지에서 모종을 길러 옮겨심어 재배하는 참당귀는 꽃대가 올라온 3년생 포기에서, 온상 육

묘해 옮겨심거나 직파재배한 경우는 꽃대가 나온 2년생 포기에서 종자를 채종하면 추대울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작물시험장에 따르면 관행 일반농가처럼 1월경 온상에서 모종을 길러 4월에 옮겨심거나

4월에 직파한 참당귀의 경우 당년 10월에 꽃대가 나온 포기에서 종자를 채종, 재배하면 이듬해 재배에서는 꽃대가 22.3%나 올라오지만 2년생 포기에서 채종해 재배할 경우 꽃대 출현비율이 4.6%에 불과하다는 것.

이 결과 1년생에서 채종하면 10a당 수량이 1백44kg에 그치지만 2년생에서 종자를 채취한 것은 2백62kg으로 82%나 증수할 수 있다.

또 노자에 파종해 1년간 모종을 기른 뒤 이듬해 4월에 아주심어 그해 10월에 채종하는 관행 노지재배에서도 2년차가 아닌 3년차 10월에 채종해 재배하면 꽃대가 올라오는 비율이 0.6%로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